

# 아카이브 2.0 구축을 위한 이론적 고찰\*

## A Theoretical Study on Establishing Archive 2.0

김 유 승(You-Seung Kim)\*\*

### 목 차

- |                                |                         |
|--------------------------------|-------------------------|
| 1. 서 론                         | 3.1 유어 아카이브즈, 영국 국립아카이브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2 아워 아카이브즈, 미국 국립기록청  |
| 1.2 선행연구 분석                    | 4. 아카이브 2.0의 구축         |
| 2. 이론적 배경                      | 4.1 아카이브 2.0의 편익과 위험    |
| 2.1 아카이브 2.0의 개념               | 4.2 아카이브 2.0의 구축 요건     |
| 2.2 아카이브 2.0의 유형               | 4.3 아카이브 2.0의 국내 적용 문제  |
| 3. 사례연구: 위키 형식의 기록정보 서비스를 중심으로 | 5. 결 론                  |

### <초 록>

본 연구는 아카이브와 웹 2.0의 단순한 결합이 아닌,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아카이브 관리·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아카이브 2.0을 연구한다. 기존의 아카이브를 지칭하는 아카이브 1.0과 관리운영, 이용자관계, 아키비스트의 역할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다양한 특징으로 아카이브 2.0의 개념을 논하고, 적용 기술에 따른 기록정보서비스의 유형과 이용자 참여 유형을 다수의 사례를 들어 분석한다. 이를 통해, 아카이브 2.0의 핵심 요소인 이용자중심성과 개방성에 가장 부합하는 서비스 형식이라 할 수 있는 위키 형식의 기록정보 서비스로 '유어 아카이브즈(Your Archives)'와 '아워 아카이브즈(Our Archives)'의 사례를 살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카이브 2.0의 편익과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아카이브 2.0 구축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조직적 필수 요소들을 논의한다.

주제어: 아카이브 2.0, 웹 2.0, 기록정보서비스

### <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Archive 2.0' as a new paradigm for managing and maintaining user-centered archives. A number of characteristics of 'Archive 2.0' which are quite different from established archives, so-called 'Archive 1.0', are explored in three aspects including management, user relation and archivists' role. Furthermore, the study analyzes types of record services and user participations according to applied technologies. For case studies, two wiki-based record services, 'Your Archives' and 'Our Archives', are explored. Based o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studies, advantages and drawbacks of 'Archive 2.0' are analyzed. As a result, essential elements for establishing 'Archive 2.0' are discussed.

Keywords: archive 2.0, web 2.0,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 본 논문은 2010년 한국기록관리학회 추계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kimyus@cau.ac.kr)

■ 접수일자 2010년 11월 17일 ■ 수정일자 2010년 12월 19일 ■ 게재확정일자 2010년 12월 22일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카이브가 변화하고 있다. 웹 2.0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정보통신기술의 진화는 이용자들의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요구와 활용 행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아카이브들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써 적극적 이용자 서비스와 새로운 운영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다수의 아카이브들은 다양한 정보기술을 업무 전반에 활용하고 있을뿐더러, 전례 없는 이용자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공에 힘쓰고 있다. 기록정보의 디지털화와 웹 공간 활용을 시작으로, 매쉬업·RSS·블로그 등의 대표적인 웹 2.0 기술뿐 아니라, 트위터·페이스북 등의 상업 서비스들도 아카이브 이용자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카이브가 직면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아카이브와 웹 2.0 기술 및 어플리케이션의 단순한 결합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웹 2.0으로 촉발된 2.0 패러다임이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록정보의 관리와 활용을 배타적으로 독점해왔던 아카이브에서 기록정보를 개방과 공유의 장으로 끌고나와 이용자 참여를 장려하는 새로운 아카이브로의 전환, 기록정보의 보존관리자에서 기록정보의 중계

자로서의 아키비스트의 전환이 그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아카이브에 다가온 새로운 패러다임을 '아카이브 2.0'이라 규정하고자 한다. 국내외적으로 아카이브 2.0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실무적 또는, 단편적 프로젝트<sup>1)</sup>를 위한 논의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현장 아키비스트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웹 커뮤니티들<sup>2)</sup>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2009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소규모로 열린 '아카이브 2.0 2009 컨퍼런스'가 아카이브 2.0에 대한 본격적 학술 논의의 시초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카이브와 웹 2.0의 단순한 결합이 아닌,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아카이브 관리·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아카이브 2.0의 개념을 분석하고, 사례들을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카이브 2.0의 편익과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아카이브 2.0 구축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둔다.

### 1.2 선행연구 분석

아카이브 2.0에 대한 논의는 아카이브의 이용자서비스에 대한 연구들에 근거하고 있다. 이용자서비스에 관한 다양한 논의의 일환으로 아카이브에 웹 2.0의 기술들을 적용하는 방안들이 연구되면서, 아카이브 2.0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학술 연구의 흐름으

1) 아카이브 2.0을 주제로 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Michigan State University의 WIDE 연구센터가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한 커뮤니티 중심 운영방식의 편익과 문제점을 연구하기 위해 수행한 <Archive 2.0: Imaging The Michigan State University Isrealite Samaritan Scroll Collection as the Foundation for a Thriving Social Network>(Ridolfo 외 2009)를 들 수 있다.  
2) 대표적인 예로 Kate Theimer의 ArchivesNext(<http://www.archivesnext.com/>)와 Christian van der Ven이 설립한 아키비스트 커뮤니티 Archives 2.0(<http://archives20.ning.com/>) 등이 있다.

로, 현단계에서는 웹 2.0의 각종 기술을 적용한 아카이브 서비스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가장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앞선 국내 연구 성과로는 서은경·정경희·최상희(2006)의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 활용 및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서은경 등은 해외 각국의 기록정보서비스를 학습지원 서비스, 연구지원서비스, 특정주제서비스로 유형화하여 비교 분석하며, 이를 통해 기록정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이어 정경희(2007)는 기록정보서비스의 유형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록관 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마케팅 전략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기하면서, 인구통계변수, 지리변수, 심리변수 등을 활용한 이용자 세분화를 위하여 기록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좀 더 거시적 측면의 관점은 이영숙(2007)의 『공공기록물 정보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와 설문원(2008)의 『기록정보서비스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영숙은 미국, 영국,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물 정보서비스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설문원은 미국과 영국의 기록정보서비스 전략계획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국가기록원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원칙들을 제시하여, 국가기록원의 기록정보서비스 전략목표를 제안한다.

이와 반대로, 특정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연구로는 기록관의 이용자서비스 중 교육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예로는 김희정(2008)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김희정은 『기록관의 교육서비

스 사례유형 연구』를 통해 서구 국가들의 국가 기록원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석하는 미시적 관점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상의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 기록정보서비스의 웹 2.0 적용을 논의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장혜란·이명희(2008), 설문원(2009), 남재우·김성희(2009)의 연구 등이 있다. 장혜란·이명희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위한 이용자서비스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해외 지방기록관 웹사이트를 통한 이용자서비스 사례와, 웹 2.0 기술의 응용사례를 탐구하여 기본 서비스, 확장서비스, 상호작용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이용자 서비스 모형을 제안한다. 다만, 연구의 목적을 이용자 서비스 모형 구축에 두고 있어, 기록관의 웹 2.0 적용은 일반적 소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설문원 또한 기록정보서비스에 있어 웹 2.0의 적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통합적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아닌, 검색도구의 개념, 발전과정, 쟁점과 과제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본 연구와 논의의 범주를 달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도구의 개방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위키 기반 기록서비스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점이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록정보서비스와 웹 2.0의 연관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남재우·김성희의 『기록정보서비스를 위한 Web2.0 적용에 관한 연구』는 진일보한 연구 성과로 평가된다. 이 연구에서 남재우·김성희는 웹 2.0 기술에 대한 논의와 설문조사를 통해 기록정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웹 2.0의 유용성에 대해 연

구하고, 기록정보서비스의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웹 2.0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웹 2.0의 기술적 측면의 분석과 이에 따른 적용 가능성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정책적 측면은 포괄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앞선 연구 성과에 기반하여, 기록정보서비스와 웹 2.0의 기술 및 가치의 결합으로 일컬어지는 아카이브 2.0의 개념과 유형, 사례와 발전 전망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아카이브 2.0의 개념

아카이브 2.0에 대한 학술적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국내의 경우,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 보았듯이, 기록정보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웹 2.0 기술을 적용하는 데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아직 아카이브 2.0의 개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는 전개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맥락에서, 도서관과 웹 2.0의 결합에 대한 앞선 논의들은 아카이브 2.0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서관 2.0이 기존 도서관에 대한 웹 2.0 기술의 단순한 적용이 아니듯, 아카이브 2.0 또한 웹 2.0 기술의 단순 활용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도서관 2.0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펼쳐온 코헨(Cohen 2006), 크로우포드(Crowford 2006), 마네스(Maness 2006) 등에 따르면, 도서관 2.0은 웹 2.0 기술과 어플리케이션의 단순한 도입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도서관 2.0에 관한

연구들은 도서관과 이용자 간의 쌍방향적 소통과 참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 유연함, 이용자중심, 기술친화 등 일련의 가치 지향하는 패러다임으로서의 도서관 2.0을 주장하고 있다(Farkas 2008). 다시 말해, 도서관 사명의 지속적 수행을 위해서 우리가 직면한 변화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는 인식이 도서관 2.0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아카이브 2.0의 특성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아카이브 2.0은 기존의 아카이브를 지칭하는 아카이브 1.0과 관리 운영, 이용자관계, 아키비스트의 역할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다양한 특징을 지닌다(표 1 참조).

#### 2.1.1 관리·운영

관리·운영 측면에서 볼 때, 아카이브 1.0이 지리적으로 고정된 물리적 공간을 갖추고 기록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전통적 아카이브라면, 아카이브 2.0은 물리적 공간으로부터 자유롭게 이용자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Ridolfo 외 2009). 플랫폼으로서의 아카이브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적극적 수용을 통해 기록정보자원의 투명하고 개방적인 활용을 지원한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수용은 양면성을 지닌다. 복합적인 아카이브의 제반 문제를 기술적 해법만으로 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중심주의는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주장한다. 반대로, 기술 수용에 대한 기피와 혐오는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편익과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오늘날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는 변화하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첩하게 대

〈표 1〉 아카이브 1.0과 2.0의 비교<sup>3)</sup>

	아카이브 1.0	아카이브 2.0
관리 운영	고정된 물리적 공간 기반	온라인 기반
	기술 기피	기술 선호
	전통 중시	혁신과 유연성 중시
	폐쇄적 보존 중심	개방적 활용 중심
	불투명	투명
아키비스트	제공자, 게이트키퍼, 권력으로서의 아키비스트	조력자, 중개자로서의 아키비스트
	지식보유자로서의 아키비스트	실천가로서의 아키비스트
이용자	자발적 이용자에 의존	새로운 이용자 발굴을 위한 방안 모색
	아키비스트/기록 중심	이용자 중심

응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지닌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아카이브 2.0 구축의 근간이 된다(Kelly 2009).

관리운영 측면에서 기술의 수용여부와 함께 대두되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투명성이다. 여기에서 투명성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이브 업무 전반의 투명성을 이야기한다. 아카이브의 투명성은 아카이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테리 쿡(Terry Cook)을 비롯한 아카이브 이론가들은 불편부당한 아키비스트의 전통적 개념<sup>4)</sup>은 더 이상 수용될 수 없으며, 아키비스트들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시대적, 사회적 편견이 아키비스트의 평가, 선별을 비롯한 모든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Cook, Schwartz 2002). 이러한 아키비스트의 불편부당성 논쟁에 대한 실제적 대안이 아카이브의 투명성 확보이다. 아키비스트가 객관적이 될 수 없다면, 최소한 투명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Weinberg 2009).

### 2.1.2 아키비스트

이러한 혁신적 관리·운영은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기반을 둔다. 아카이브 1.0의 중심에는 지식정보의 일방적 제공자이자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자임한 지식인 집단으로서의 아키비스트가 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폐쇄적이고 불투명하게 운영되었던 아카이브 1.0은 태생적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둔감하였으며, 스스로 아카이브를 찾는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 반면에 아카이브 2.0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새로운 이용자들을 발굴할 방안을 모색하고, 이용자들의 편리한 기록정보 활동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아카이브 2.0은 기관의 무게 중심을 아키비스트에서 이용자들로 변화시키려 하며, 이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구현된다.

3) 〈표 1〉은 Kate Theimer가 미국아키비스트소사이어티 연례회의(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Annual Meeting)에서 발표한 아카이브 2.0의 특성을 기반으로 재분류 및 재구성한 것임(Theimer 2009).

4) 힐러리 젠킨슨(Hilary Jenkinson)은 기록물평가에 대한 아키비스트의 관여가 주관적 평가결정으로 이어지며, 이는 역사를 왜곡하고 기록의 공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Williams 2006, 38-39 재인용).

### 2.1.3 이용자

이러한 아카이브 2.0의 혁신적 관리·운영과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대한 고민은 궁극적으로 이용자 중심의 아카이브를 지향한다. 인류의 지식정보자원을 다루는 이른바 기억기관(memory institution)이라 불리는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 중에서 이용자에 대한 가장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온 기관이 도서관이라면, 아카이브는 그 대척점에 서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들어, 일부 아카이브들은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모든 아카이브가 그러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아카이브는 언제나 개방되어 있고, 유연한 이용자 중심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반문해 본다. 아카이브에서의 이용자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sup>5)</sup> 이용자 집단에 대한 아카이브의 이해와 노력은 다른 기억기관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 그동안 아카이브의 전통적 이용자들은 스스로의 요구를 인지하고 표현할 충분한 지식을 지니며, 나아가 발견한 기록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전문가집단으로 인식되어왔다(Huvila 2008, 16). 하지만, 기술의 발달과 정보가치의 변화 속에 아카이브 이용자집단의 구성과 요구 또한 변화하고 있다. 아담스

(Adams 2007)는 디지털기록의 이용과 이용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미국 국립 기록청의 이용자 기반이 사회과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이용자 그룹에서 여타 비연구자 집단으로 서서히 하지만 확고히 변화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sup>6)</sup>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이용자와의 소통방식과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아카이브 2.0의 핵심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특징들 중 아카이브즈 넥스트(ArchivesNext)의 운영자 타이머(Theimer 2008)는 아카이브 2.0의 핵심적 요소를 아카이브의 이용자 중심성과 개방성이라 주장한다. 아카이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명 수행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용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아카이브에 대한 이용자들의 기대가 변화하고 있으면, 이에 따라 아카이브가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인식이야말로 아카이브 2.0 개념의 중심이다. 한편, 개방성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동반자, 새로운 기술, 새로운 운영방식, 다양한 이용자, 새로운 종류의 기록,<sup>7)</sup> 새로운 홍보 기회, 다른 교육 배경을 가진 이들에 대한 개방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아카이브 2.0의 복합적 개념을 살펴해보았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아카이브 2.0에 활용되고 있는 기술들은 아카이브의 이용성을 진흥, 향상시키는 데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아

5) 쿡(Cook 2001)은 지속적 활용을 통해 변화하는 기록정보의 특성을 들어 이용자 참여를 강조해왔다.

6) 이러한 변화에 주목한 Pugh(2004)는 기록정보서비스 이용자들을 첫째, 기록연구 전문가 집단, 둘째, 진문적, 학자, 학생, 교사 등 여타 업무상 정보를 찾는 집단, 셋째, 아마추어 역사가 등의 개인적인 관심사로 인해 정보를 찾는 사람의 집단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7) 콘텐츠의 측면에서, 아카이브가 도서관 등의 기억기관들과 동일한 수준의 개방성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대부분은 국가들은, 아카이브 보유 정보들의 고유한 가치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록지식정보의 공개와 공유에 있어 법적 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해 비공개정보대상을 정하고 있다(제8조). 하지만 비공개정보의 범주와 기준에 대한 비판과 논의는 지속적인 사회적, 학술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카이브 2.0의 외향적 모습은 서비스 측면에서 주로 관찰되며,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단순한 기술 적용 이상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점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카이브 2.0은 아카이브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들, 그리고 아카이브의 모든 업무 과정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인식된다. 단, 본 연구에서는 적용기술에 따른 기록정보서비스의 유형과 이에 따른 이용자의 참여 유형을 중심으로 한 아카이브 2.0의 정보서비스 측면에 집중하고자 한다.

## 2.2 아카이브 2.0의 유형

아카이브 2.0이 웹 2.0 기술의 단순 활용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반대로 아카이브 2.0의 구축에 있어 기술적 기반이 되는 웹 2.0 어플리케이션들의 중요성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적용되는 기술과 어플리케이션의 종류에 따라 기록정보서비스의 형태와 성격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에서는 적용 기술에 따른 기록정보서비스의 유형과 이용자 참여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 2.2.1 적용 기술에 따른 서비스 유형

웹 2.0이라 불리는 어플리케이션 모두가 기록정보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남재우·김성희(2009, 135-142)는 웹 2.0 기술을 활용한 기록정보서비스로 위키 기반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 Ajax을 활용

한 실시간 상담서비스, 오픈 API를 이용한 통합 검색 서비스, RSS 서비스 등을 들었다. 한편, 사무엘리언(Samouelian 2009, 45)은 이용자를 위한 기록정보서비스에 적용되는 2.0 어플리케이션으로 블로그, 위키와 소셜네트워크 등의 커뮤니티 사이트, 등급과 리뷰기능, 포드캐스팅, 북마크 등을 들었다. 앞선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실제 적용사례들을 '적극적 기록정보 제공', '멀티미디어 기록정보제공 및 공유', '커뮤니티기반의 기록정보제공 및 공유'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이를 다시 매쉬업, RSS, 이미지공유, 비디오공유, 오디오공유,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위키 등의 9가지로 세분화한다. 단, 본 연구는 각 유형별 사례들의 통계적 조사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표 2>에서는 각 유형별로 사례 2개씩만을 예시하며, 이들은 유형별 사례의 대표성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다수의 아카이브들이 여러 기술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개별 기술에 따른 서비스의 특징과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해당 기관의 대표적 활용 기술 하나씩만을 사례로 삼았다.

첫째, 매쉬업과 RSS 등을 활용한 적극적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의 사례다. 매쉬업이란 웹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기능을 합치고 응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표 2>에서 매쉬업 서비스의 예로 든 노스캐롤라이나 포스트카드(North Carolina Postcards), 사퍼톤 히스토리(SappertonHistory.ca)<sup>8)</sup> 등의 경우, 보유 기록정보와 구글 지도를

8) '사퍼톤 히스토리' 웹사이트는 국제아카이브위원회(ICA)의 무료 오픈소스 아카이브 기술(description) 소프트웨어인 'ICA-AtoM'로 운영되고 있다. 'ICA-AtoM'은 국제아카이브 위원회 표준에 기반하고 있으며, AtoM은 '기억으로의 접근'(Access to Memory)을 뜻한다.  
출처: SappertonHistory.ca 웹사이트. [cited 2010. 8. 10]. <<http://www.sappertonhistory.ca/about>>.

〈표 2〉 적용 기술에 따른 아카이브 2.0의 유형과 사례

유형	서비스 사례	사이트 주소*
A	매쉬업	SappertonHistory.ca http://www.sappertonhistory.ca/ North Carolina Postcards http://www.lib.unc.edu/dc/nc_post/vanished.php
	RSS	The National Archives, UK RSS Feed http://www.nationalarchives.gov.uk/rss/default.htm
		The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http://www.naa.gov.au/info/rss/index.aspx
	이미지 공유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http://www.flickr.com/photos/13145591@N06/ The Library of Congress http://www.flickr.com/photos/library_of_congress/
비디오 공유		Archives of Ontario http://www.youtube.com/ArchivesOfOntario Musée McCord Museum http://www.youtube.com/user/MuseeMcCordMuseum
	오디오 공유	The Library of Congress, Webcasts http://www.loc.gov/today/cyberlc/index.php Presidential Libraries Podcast http://www.archives.gov/presidential-libraries/research/podcasts.html
C		블로그
	트위터	Deseronto Archives, Canada https://twitter.com/DeserontoArch 대통령기록관 http://twitter.com/PresidentGirok
		페이스북
	위키	

A: 적극적 기록정보제공.

B: 멀티미디어 기록정보제공 및 공유.

C: 커뮤니티기반 기록정보제공 및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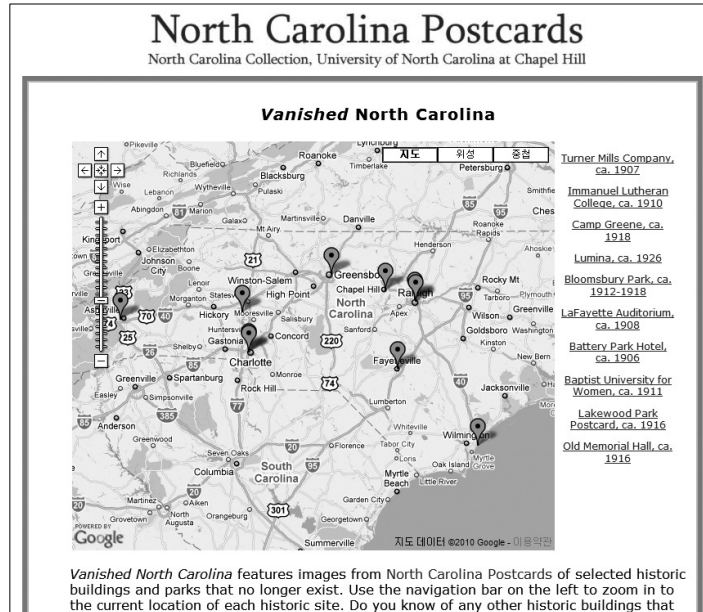
\* 최종 검색일 2010. 11. 15.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1 참조). 한편, RSS는 웹에 올라온 글을 쉽게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규칙으로, 웹상의 기록정보 콘텐츠의 수집과 전달에 있어 혁신적 개선을 가져오고 있다.

둘째, 플리커(Flickr)를 활용한 이미지, 유튜브(YouTube)를 활용한 비디오, 포드캐스팅을 통한 오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기록정보를 제공 및 공유하는 유형이다. 호주국립도서관, 뉴질랜드국립도서관, 미국 국회도서관 등 많은 기관들이 플리커를 활용하여, 기관이 보

유하고 있는 사진기록들을 상세한 부가 정보와 함께 대중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해당 사진기록에 대한 코멘트 달고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그림 2 참조). 같은 맥락에서, 온타리오 아카이브(Archives of Ontario)<sup>9)</sup> 등은 유튜브를 통해, 보유하고 있고 영상기록물을 공개하고, 기관의 연혁과 시설 및 활동을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국회도서관 등이 활용하고 있는 포드캐스팅은 개별 이용자들이 오디오 클립을 다운로드, 업로드, 공유, 녹음, 편집할 수 있게 허

9) [cited 2010. 8. 10]. &lt;http://www.youtube.com/ArchivesOfOntario&gt;.



〈그림 1〉 노스캐롤라이나 포스트카드의 매쉬업 활용 예10)



〈그림 2〉 미국 의회도서관의 플리커 활용 예11)

10) 노스캐롤라이나 컬렉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cited 2010. 8. 8].

〈[http://www.lib.unc.edu/dc/nc\\_post/vanished.php](http://www.lib.unc.edu/dc/nc_post/vanished.php)〉.

11) 미국 의회도서관 포토스트림. [cited 2010. 8. 8]. 〈[http://www.flickr.com/photos/library\\_of\\_congress/](http://www.flickr.com/photos/library_of_congress/)〉.

용한다. 이용자 누구에게나 웹을 통해 오디오 콘텐츠를 기록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셋째가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기록정보서비스 유형이다. 블로그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사람과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며, 웹정보의 단순 수신자가 제공자로 변화할 수 있는 손쉬운 통로의 역할을 한다. 한편, 미국 국립기록청의 '아워 아카이브즈(Our Archives)'로 대

표되는 위키 형식의 기록정보서비스는 블로그와 차별되는 높은 수준의 이용자 참여를 요구한다(그림 3 참조). 위키를 통해 표현되는 다양한 이용자 참여와 경험은 기록 콘텐츠에 전례 없는 역동성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들도 이용자들과의 쌍방향 소통과 기록정보의 공유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그림 4 참조).



〈그림 3〉 아워 아카이브즈 위키, 미국 국립기록청<sup>12)</sup>



〈그림 4〉 대통령기록관 트위터<sup>13)</sup>

12) [cited 2010. 8. 10]. <<http://www.ourarchives.wikispace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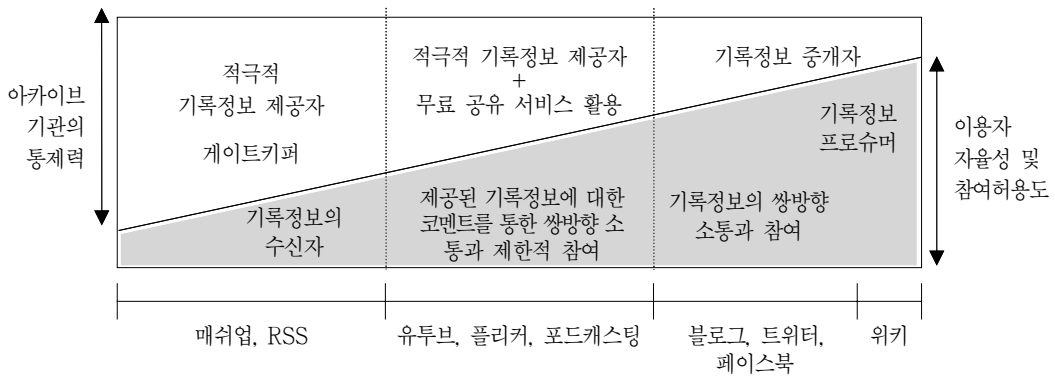
2.2.2 이용자 참여 유형

현 단계에서 적극적 이용자 참여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기록정보서비스에 있어 개별 이용자들의 참여 행태에 대한 이론적 해석이 아닌 실증적 학술 연구는 미미하다. 클라우스와 야켈(Krause & Yakel 2007)은 ‘북극곰원정대 디지털 컬렉션(The Polar Bear Expedition Digital Collection)’ 연구에서 웹 기반 디지털 아카이브의 이용자 참여 방식으로 북마크, 댓글, 링크 경로, 이용자 프로파일 등을 제시하였다. 본격적인 이용자 참여 행태에 대한 연구는 제시카 세드윅(Jessica Sedgwick)이 2009년 미국 아키비스트 협회 컨퍼런스의 발표를 통해 제시되었다. 세드윅(Sedgwick 2009)은 웹 2.0의 특성과 도구들을 적용한 3곳의 디지털 아카이브(14)

를 대상으로 이용자 참여 행태를 연구하고 이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이용자들의 참여 유형은 기록정보의 검증, 심층정보의 제공, 부가 정보원으로서의 연계, 개인적 관계의 구축, 일반적 또는 의견 코멘트, 오류 수정, 질문, 다른 이용자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 기증제안, 외국어 코멘트의 번역, 기존 메타데이터의 편집, 불만호소, 사본 요청 등 13가지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서 살펴본 아카이브에 적용되는 기술 및 어플리케이션에 따른 서비스 유형과 이용자 참여 유형 및 수준의 연관성은 <그림 5>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림 5>에서와 같이 적용 기술에 따라 기록정보에 대한 아카이브 기관의 통제력과 이용자 자율성 및 참여 허용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sup>15)</sup>



<그림 5> 기술 및 어플리케이션에 따른 기록정보 서비스와 이용자 참여 유형 및 허용도의 연관성

- 13) [cited 2010. 11. 15]. <http://twitter.com/PresidentGirok>.
- 14) 연구 대상이 된 세 곳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Keweenaw Digital Archives, Beyond Brown Paper, Polar Bear Expedition Digital Collections이다.
- 15) 적용되는 기술과 어플리케이션에 따른 이용자 참여의 행태와 수준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참여 허용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참여 수준이 높다고 가정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이다. 예를 들어, 위키미디어의 ‘위키피디아tm 리스트’에 따르면, 언어별 위키피디아 항목 수 순위에서 한국어는 256개 언어 중 21위에 올라 있다. 영어는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일본어는 6위를 차지하고 있다(Wikimedia 2010). 이는 전 세계 인터넷과 IT산업 전반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고려할 때, 결코 높은 순위가 아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석은 문화적 측면에서부터 산업구조적 측면까지 다양하다. 이희은(2008, 482)은 “한국어 사용 인구 중에서 한국어 위키보다는 영어 위키에 접근하는 인구수가 많을 것”이며, 동시에 “국내포털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기 때문”일 것이라는 가정을 제시한 바 있으며, 임지선과 구둘래(2007)는 사용방식의 어려움, 토론문화의 차이, 저작권 문제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첫 번째 유형인 매쉬업과 RSS를 활용한 기록정보서비스의 경우, 아카이브는 다양한 기술적 해법을 활용하여 새롭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록정보의 일방적 제공자로서 기록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있어 강한 통제력을 가진다. 반면, 이용자들은 아카이브가 제공하는 기록정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수동적 수신자에 다름 아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유튜브, 플리커, 포드캐스팅 등의 무료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기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다. 첫 번째 유형과 비교하여 제한적으로나마 이용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코멘트를 통해 해당 기록정보에 대한 개인적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 이는 해당 기록정보의 상세 내용을 다시금 확인하는 과정이자, 개별 이용자 또는 이용자 집단과 기록정보에 대한 관계 구축으로 확장된다. 특히, 기록정보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기관의 울타리 안에 한정되지 않고 무료 공유 사이트들을 이용하여 기록정보의 대중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모습은,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독점적으로 보유 기록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관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첫 번째 유형과 같이 이 유형에서도 기록정보의 사실상 독점적 제공자라는 아카이브의 지위와 역할에는 큰 차별성이 없다.

셋째 유형은 가장 높은 이용자 참여를 전제로 한다. 블로그를 활용한 기록정보서비스에서 각각의 기록정보에 대한 코멘트는 중요한 이용자 콘텐츠가 되며, 이를 통해 일정한 쌍방향성이 보장된다. 하지만, 기록정보서비스 블로그에서 주요 콘텐츠 제공자는 여전히 기관 혹은 기

관에 소속된 직원 및 전문가 집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블로그의 활용은 이용자 참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셋째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용자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콘텐츠에 대한 주도권이 기관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두 번째 유형의 성격 또한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경우, 좀 더 개방된 이용자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위키 형식의 기록정보서비스는 극대화된 이용자 참여를 전제로 하는 서비스 유형으로, 이용자가 기록정보와 목록까지를 작성, 수정, 편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용자는 기록정보의 생산자이자 이용자인 프로슈머의 성격을 지니며, 아카이브는 기록정보서비스의 중개자이자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측면에서 위키 방식의 기록정보서비스는 아카이브의 “제한된 인적 자원과 지식의 한계를 이용자를 통해 극복하기 위한 방안”(설문원 2009, 30)으로, 나아가 “이용자가 부여하는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공간”(Duff and Harris 2002)으로서의 아카이브 구현을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카이브 2.0의 핵심 요소를 이용자중심성과 개방성이라고 하였을 때, 이에 가장 부합하는 서비스 형식이라 할 수 있다.

### 3. 사례연구: 위키 형식의 기록정보 서비스를 중심으로

위키는 하와이 원주민어로 ‘빠른’이란 뜻이다. 1994년 위키를 최초 개발한 워드 커닝햄

(Ward Cunningham)은 자신의 소프트웨어 위키웹(WikiWikiWeb)을 '활용이 가능한 가장 단순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설명하고 있다.<sup>16)</sup> 오늘날 위키는 웹상의 단순화된 마크업 언어 또는 위지윅(WYSIWYG)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상호연결된 웹 페이지를 손쉽게 생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도록 한 웹 페이지 모음이다. 일반적으로 위키 소프트웨어에 의해 운영되는 위키는 협력적 위키 웹사이트를 생성하고, 개인적 기록, 기관 인트라넷, 지식관리시스템을 위한 커뮤니티 웹사이트를 강화하는 데 활용된다. 누구라도 내용을 편집 수정할 수 있는 인터넷 포럼, 토론장, 레포지토리, 공동 작업장 등의 복합적 웹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의 이용자 참여를 허용하는 위키를 채택하고 있는 기관의 수는 많지 않다. 제공하는 기록정보의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아카이브에게 위키는 많은 기회만큼이나 위험요소가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위키를 채택한 대표적 기관인 영국 국립아카이브와 미국 국립기록청의 기록정보서비스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3.1 유어 아카이브즈, 영국 국립아카이브

2007년 4월 영국 국립아카이브 온라인 서비스의 일부분으로 시작된 '유어 아카이브즈(Your

Archives)'는 개별 정부차원에서 실시한 최초의 위키 기반 기록정보서비스이다. '유어 아카이브즈'는 위키피디아(Wikipedia)<sup>17)</sup>에 의해 개발된 GNU 일반공중사용허가서(General Public License)를 따르는 자유로운 위키 소프트웨어, '미디어위키(MediaWiki)'를 사용한다.

국립아카이브는 '유어 아카이브즈'가 영국 전역의 아카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아카이브 유산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역사적 정보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록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접근가능한 정보자원이자, 이들을 위한 커뮤니티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18)</sup> 이용자와 기록정보 활용을 중심에 두고 디자인된 '유어 아카이브즈'가 국립아카이브의 메인 웹사이트와 명확한 차별을 두며, 위키 기반의 기록정보서비스를 채택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유어 아카이브즈'를 통해 이용자들은 역사적 주제 또는 국립아카이브가 보유한 기존의 기록정보 콘텐츠를 편집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새로운 글을 게시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유사한 주제에 대해 다른 이용자와 함께 협력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발견한 유용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워크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유어 아카이브즈'의 대부분 글은 국립아카이브의 온라인 목록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하고 있다. 국립아카이브의 온라인 목록, '더 카탈로

16) Wikipedia:About. [cited 2010.8.15]. <<http://en.wikipedia.org/wiki/Wikipedia:About>>.

17) Jimmy Wales와 Larry Sanger에 의해 2001년에 시작되어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온 Wikipedia는 웹 기반의 다언어 백과사전으로, 누구든지 콘텐츠를 수정·편집할 수 있으며, 목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콘텐츠 프로젝트이다. 현재 WikiMedia 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Wikipedia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자유롭게 작성, 수정, 편집한 문서들이 Creative Commons의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출처: Wikipedia:About. [cited 2010. 8. 10]. <<http://en.wikipedia.org/wiki/Wikipedia:About>>).

18) Your Archives:About. [cited 2010. 8. 10].

<[http://yourarchives.nationalarchives.gov.uk/index.php?title=Your\\_Archives:About](http://yourarchives.nationalarchives.gov.uk/index.php?title=Your_Archives:About)>.

그(The Catalogue)'는 중앙정부, 사법부, 여타 국립 기관 등에 출처를 두고 있는 1천1백만여 개의 문헌기술을 포함하고 있다.<sup>19)</sup> 이용자들은 이 온라인 목록을 활용하여 문헌에 대한 심화 정보와 유사한 정보자원을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람하고자 하는 문헌을 주문할 수도 있다. 방문 열람 또는 사본 주문 또한 가능하다.

2009년 9월 현재, 10,500여 개의 위키 페이지 생성을 기록하고 있는 '유어 아카이브'는 2009년 11월부터 트위터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up>20)</sup>

### 3.2 아워 아카이브즈, 미국 국립기록청

2010년 7월 미국 국립기록청은 "우리 목소리, 우리 역사, 우리 아카이브"라는 슬로건 아래 '아워 아카이브즈(Our Archives)'<sup>21)</sup>라 불리는 공공 위키 서비스를 시작한다. '아워 아카이브즈'는 미국 국립기록청이 아닌 상업 위키서비스, 위키스페이스이즈(Wikispaces)<sup>22)</sup>에 의해 호스팅되고 있다.<sup>23)</sup> 국립기록청은 '아워 아카이브즈'를 아카이브 직원에서부터 연구자, 일반 시민에 이르는 다양한 대중들이 국립기록청의 기록, 자원, 연구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는 협력의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NARA 2010).

연구자, 역사학자, 아키비스트, 그리고 시민

들에게 특정 기록이나 주제에 대한 위키 페이지를 함께 만들고 발전시켜나갈 기회를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참여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국립기록청이 보유한 역사적 주제 또는 기록에 대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고 기존 페이지를 편집할 수 있으며, 온라인 목록의 기술을 확장한다. 미국 국립기록청 보유물의 온라인 목록인 아카이브연구목록(ARC, Archival Research Catalog)<sup>24)</sup>에 이용자의 참여가 허용된 것이다. 또한 문서의 사본을 출판할 수 있으며, 다른 정보자원을 추가할 수 있다. 이용자들이 발견한 유용한 정보를 저장할 워크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유사한 주제 혹은 연구 프로젝트에서 다른 이용자와 협력할 수 있으며,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위키 페이지를 통해 토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sup>25)</sup>

이용자로 등록된 누구에게나 동일한 접근 권한이 부여되며, 어떠한 참여 조건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립기록청이 정한 규정에 어긋나는 유해한 콘텐츠 혹은 코멘트는 국립기록청이 인지 후 즉각 삭제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두 사례는 서비스 이름, 운영주체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동일한 목적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위키 기반의 서비스라는 이유도 있지만, '아워 아카이

19) The Catalogue. [cited 2010. 8. 15]. <<http://www.nationalarchives.gov.uk/catalogue/>>.

20) 유어 아카이브즈의 트위터 계정은 '@YourArchives'이다.

21) [cited 2010. 8. 9]. <<http://www.ourarchives.wikispaces.net/>>.

22) [cited 2010. 8. 11]. <<http://www.wikispaces.com/>>.

23)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정책 또한 국립기록청이 아닌 Wikispaces의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24) 아카이브연구목록은 272 평방 피드에 달하는 보유물을 포함하고 있다. 목록은 520 기록그룹, 2,365 수집물, 102,598 시리즈, 3,265,988 파일, 292,887 아이템으로 나뉜다. [cited 2010. 8. 15].

<<http://www.archives.gov/research/arc/about-arc.html>>.

25) About Our Archives. [cited 2010. 8. 11]. <<http://www.ourarchives.wikispaces.net/About+Our+Archives>>.

〈표 3〉 ‘유어 아카이브즈’와 ‘아워 아카이브’의 비교

서비스명	유어 아카이브즈(Your Archives)	아워 아카이브즈(Our Archives)
운영주체	영국 국립아카이브(TNA)	미국 국립기록청(NARA)
서비스개시일	2007년 4월	2010년 7월
운영기술	미디어위키(MediaWiki)	위키스페이스이즈(Wikispaces)
연계목록	더 카탈로그(The Catalogue)	아카이브연구목록(ARC)
이용자참여 형태	기존 기록정보콘텐츠 편집, 새로운 기록정보의 생성, 목록 확장, 웹을 통한 사본 출판, 이용자 간 협력	
저작권	저작권 법령의 일반적 적용과 이에 근거한 공정 이용(fair use) 장려	

브즈’가 이미 3년여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을 보여온 ‘유어 아카이브즈’의 정책과 운영 방식을 상당부분 벤치마킹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공통점은 다음 6가지이다. 첫째, 독자적인 위키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고 기관 외부 업체에 의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기관의 실적과 기관 중심의 운영에서 탈피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적극적 협력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용자들이 하여금 방대한 보유물의 온라인 목록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목록의 확장을 허용하고 있다. ‘위키피디아’와 같은 위키 형식의 서비스들이 전적으로 이용자가 생산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정보의 활용을 허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참여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셋째, 허용하고 있는 이용자 참여의 형태가 동일하다. 이는 위키 형식의 기록정보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의 전형을 보여준다. 다섯째, 저작권의 운영에서도 동일하다. 두 서비스 모두 자국의 저작권 법령이 적용됨을 천명하면서, 이에 근거한 공정한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록정보 콘텐츠의 품질에 대한

대응 방식이다. 둘 모두 서비스 내의 콘텐츠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표 3 참조).

## 4. 아카이브 2.0의 구축

### 4.1 아카이브 2.0의 편익과 위험

아카이브 2.0의 구현으로 성취될 잠재적 편익은 다양하다. 아카이브 2.0은 쉽고 편리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용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 참여의 영역과 깊이에 대한 혁신적 개선을 지향한다. 앞서 살펴본 위키 기반의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사례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아카이브를 지지·지원해주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생성과 기관이 보유한 기록정보콘텐츠의 가치 증진을 꾀한다. 궁극적으로 아카이브 2.0은 21세기 아카이브에 주어진 미래적 사명의 지속적 수행을 위한 인식이자 적극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카이브 2.0의 구현에 있어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첫째, 자원의 문제다. 아카이브 2.0의 구축은 많은 인적, 재정적 자원

을 요구한다. 초기 개발 및 시설비용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자원이 필요하다. 기술과 어플리케이션은 쉽게 진화한다. 디지털 정보통신세계에서 정체는 곧 퇴보를 의미하듯, 아카이브 또한 정기적인 업데이트, 유지 및 보수 활동 없이는 그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에 필요한 자원을 충당하는 데 있어 모든 아카이브의 상황이 동일하지 않다.

둘째, 기록정보의 진본성 및 무결성에 대한 통제력의 문제다. 앞서 논의한 <그림 5>에서와 같이, 기록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자율성과 참여 정도는 기관의 통제력과 반비례한다. 메타데이터와 목록의 편집과 수정 등을 비롯하여 기록정보 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기록정보의 품질, 정확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유어 아카이브즈'와 '아워 아카이브즈' 모두, 서비스들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고 있다. 정보의 오남용에 따른 일차적 책임은 이용자 스스로에게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기록정보의 잘못된 활용은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행위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공기록정보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공유를 기치로 내세운 미국의 Data.gov와 영국의 Data.gov.uk 등은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플랫폼 독립형의 데이터셋의 검색과 다운로드를 가능케 하는 원정보목록(Raw data catalog)을 제공하고 있는

데(김유승 2010a, 213), 이들이 잠재적인 정보의 오남용에 대처하는 방식 역시 위키 기반 기록정보서비스와 동일하다. 이에, 설문원(2009, 37)은 이용자가 생산, 관리한 기록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마련은 필수적이며, 아카이브가 모든 기록정보를 통제할 수 없다면, 이용자 집단, 즉 집단지성의 힘이 유용한 대안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sup>26)</sup>

셋째, 아카이브 2.0의 근간이 되는 웹 2.0 어플리케이션들의 태생적 문제점들이다. 다수의 아카이브가 활용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표 2 참조)를 비롯한 각종 어플리케이션들이 직면하고 있는 저작권, 개인정보보호의 취약성, 상업적 서비스들의 불안정성,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소외계층의 양산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어느 하나 쉽지 않은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카이브 2.0 구현을 논의하는 것은 그 편익이 문제점보다 크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아카이브 2.0은 필요한가라고 묻는다면, 본 연구의 답은 "그렇다"이다. 세상은 끊임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낡은 관행과 시스템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용자들의 기대는 최신의 기술들과 함께 진화한다. 켈리(Kelly 2009)는 이러한 진보를 거부할 경우, 아키비스트들은 화석화된 공룡의 존재가 될지 모른다고 경고한다.

26) 2005년 『Nature』는 과학 영역 문서에 대한 브리태니커백과사전과 위키백과의 오류 비교실험에서 위키백과의 우수성을 인정한 바 있다. 위키백과의 오류는 집단지성에 의해 발견된 순간 수정, 보완되지만 브리태니커백과사전은 다음 개정판까지 오류를 수정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위키백과는 브리태니커의 오류를 지적하는 일을 하기도 했다고 보고되고 있다(Giles 2005).

## 4.2 아카이브 2.0의 구축 요건

이상에서 본 연구는 아카이브 2.0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아카이브 2.0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아카이브 2.0 구현의 필수 요건이 될 제도, 기술, 조직의 3가지 측면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적 측면이다. 아카이브 2.0 구현의 첫 단계는 정책의 수립과 정비이다.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에서부터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이용자 중심의 아카이브 서비스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책적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적이다. 이를 위해 각각의 아카이브들은 기관의 개별적 상황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기관의 정책 수준을 넘어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① 아카이브의 목적과 범주 ② 기록정보 재사용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 저작권 정책 ③ 아카이브의 책임 한계 ④ 아카이브 이용 절차 및 규칙 등이 아카이브의 명시적 정책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특히, 저작권 문제에 있어, 보유 기록정보의 모든 권리를 소유하는 전통적 저작권 개념을 대신해 저작권의 일부 권리만을 주장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선스(CCL, Creative Common License)’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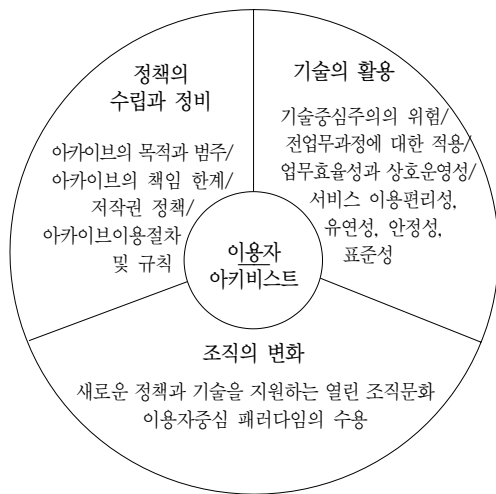
의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sup>27)</sup>

둘째, 기술적 측면이다. 아카이브 2.0에 있어 가장 경계되어야 할 것들 중 하나가 기술중심주의다. 모든 서비스가 기술에 기반하여 운영된다 하더라도, 기술 없이 구현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앞서 논의하였듯, 현 단계에서 아카이브 2.0의 활용 기술들은 아카이브의 이용성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아카이브 2.0의 개념은 아카이브의 모든 업무 과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카이브에 적용되는 기술과 어플리케이션들은 기관 업무의 효율성과 상호운영성의 증진에 복무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자신만의 서비스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유연성, 안정성, 표준성을 제공하여야 한다(김유승 2010). 이에 아카이브들은 활용 가능한 현존 기술들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문제 진단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조직적 측면이다. 정책적, 기술적 측면의 발전은 조직적 측면의 혁신을 동반하여야 한다. 아키비스트는 그 중심에 있다. 새로운 기술의 진보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용자 중심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아키비스트들의 열린 조직 문화가 기반이 될 때 아카이브 2.0을 지향하는 정책과 기술은 제 역할을 하게 된다. 출발은 아키비스트의 변

27)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을 허락받은 자만이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제46조). 이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다. 이에 반하여 CCL은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개방적인 저작권 운영방식이다. 다시 말해, CCL은 기존의 저작권인 ‘all rights reserved’와 완전한 정보공유인 ‘no right reserved’ 사이에 위치하는 ‘some rights reserved’로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장려와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목표로 한다(윤중수 2010; Creative Common Korea, CCL(Creative Common License) 알아보기. [cited 2010. 8. 15]. <<http://www.creativecommons.or.kr/info/about/>>).

화로부터 시작되며, 그 변화의 한걸음 한걸음이 더욱 힘차도록 도움 주는 것이 정책과 기술이다. <그림 6>과 같이 아카이브 2.0은 이러한 3가지 측면의 조화로운 협력 속에 구현된다.



<그림 6> 아카이브 2.0 구축 요건

#### 4.3 아카이브 2.0의 국내 적용 문제

우리나라에 근대적 기록관리를 위한 법제도가 도입된 것은 불과 10여 년 전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부터, 2004년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의 전면 개정에서 이르는 과정은, 앞서 <표 1>에서 아카이브 1.0의 요소로 들었던 명확한 관리운영 방침과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대한 사회, 제도적 인식을 확립하고자 했던 노력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우리의 현 단계는 아카이브 1.0의 기본적 요건조

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아카이브 2.0에 대한 논의가 공허한 탁상공론일 뿐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지닌다.

하지만, 본 연구는 아카이브 2.0이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현 단계를 또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지난 10여 년, 기록관리의 압축적 성장은 중앙집권적 발전 모델로 평가된다. 기록관리의 “극단적인 집권적 발전의 결과 기록관리 수혜자인 기록 생산자와 이용자가 체제의 발전에 오히려 따라오지 못하는 형국”이라는 것이다(김익한 2009, 421). 소위 ‘엘리트 모델’이라 지칭되었던 중앙집권 모델에서 대중화로의 변화를 이끌어낸 첫 번째 동력이 대학원 교육 통한 기록전문가 집단의 비약적 성장이었다면(박미애 2010, 132; 김익한 2007, 90), 두 번째 도약의 동력은 아카이브 2.0의 개념에 입각한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의 역할과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아카이브의 새로운 미래가 사회적 인식의 제고를 통한 대중성, 일상성의 확보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이용자 중심성과 개방성을 지향하는 아카이브 2.0의 개념은 적합한 전략적 지침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카이브 2.0에 대한 고민은 결코 성급한 것이 아니다.

앞서 논의한 구축 요건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상황 하에서의 아카이브 2.0 구축을 위한 요건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sup>28)</su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sup>29)</sup> 『저작권법』<sup>30)</sup> 등 기록관리

28) 법률 제10010호, 2010. 2. 4, 일부개정.  
 29)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30)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에 관련된 법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이다.<sup>31)</sup> ‘권위형 정책도구’로 법은 아카이브 2.0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전영한 2007, 268; 박미애 2010, 143 재인용). 둘째, 기관 외부 무료 웹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의 적극적 활용이다. 기관 자체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한적이고 독점적으로 보유 기록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이용자의 접근성과 참여의 양과 질 모두에서 한계를 지닌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립도서관과 국립아카이브들이 기존의 멀티미디어 정보 공유 서비스 또는 상업 위키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독점적 기관 중심의 관리에서 개방적 이용자 활용 중심으로 전환되는 아카이브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기관 중심의 독자적 웹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이지 않다. 기존 서비스와 외부의 대중적 웹 서비스를 결합하여 기록정보서비스에서의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는 방안의 하나이다. 셋째, 변화의 중심에 설 아키비스트들의 자기 혁신이다. 새로운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와 전문성이 요구되며, 기록정보 활용에 대한 사고와 태도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키비스트의 교육과정과 지속적인 재교육에 대한 조직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sup>32)</sup>

## 5. 결론

아카이브 2.0은 아카이브와 웹 2.0의 단순한 만남이 아니다. 한때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며, 새로운 기술에 열광하는 사람들만의 것도 아니다. 웹 2.0 기술의 활용이 아카이브 2.0 구축의 기반이 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아카이브 2.0은 기술적 변화가 아닌 철학적 패러다임의 이동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아카이브 2.0은 기술 중심이 아닌 기관과 이용자의 편익을 중심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아카이브 2.0에 대한 개방되고 유연한 접근은 근본적으로 협력적이고 투명하고 사용자 중심적인 접근의 개발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의 것이 아닌 우리가 이미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수의 아카이브들이 이 새로운 기술과 접근방식을 다양한 형태로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변화하는 환경과 이용자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카이브 2.0은 자연적인 진화다. 기술적 진보와 이용자 구성과 요구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아카이브 2.0의 사례를 살피고 이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그 전망을 살펴보고자 했다. 하지만, 아카이브 2.0이라는 화두 앞에 밝은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과연 이러한 패러다임은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 
- 31) 2010년 2월 기록관리 분야의 10개 개선과제를 포함한 “제4차 행정내부 규제 개선과제”의 발표와 함께 불거진 기록관리법 개정 논란은 기록관리학과와 현장에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기록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센 반대 움직임은 70여 개 공공기관이 공식적 반대의견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하는 초유의 사태로까지 번지면서, 대안적 기록관리법 개정안이 역으로 제시되기에 이르고 있다(김유승 2010b).
- 32) 2010년 11월 6일 중앙 및 지방 공공단체, 유관 기관들의 기록전문가 280여 명의 참여로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출범하였다. 기록관리의 전문성 확립, 기록 가치의 수호, 민주주의와 공익으로의 기여를 기치로 내건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키비스트 직능단체로서 아키비스트의 자기 혁신에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가? 본 연구의 답은 긍정적이다. 기술, 문화, 이용자 요구의 빠른 진화 속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그

열쇠는 2.0이 지향하는 가치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래를 향한 아카이브의 또 다른 진보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참 고 문 헌

김유승. 2010a. 거버먼트 2.0 기반의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기록학연구』, 25: 197-232.

\_\_\_\_\_. 2010b. 기록관리 실태 이대로 좋은가. 『기록관리법·정보공개법 개정 토론회: 국민의 알권리 이대로 좋은가』: 1-9.

김익한. 2007. 기록학의 도입과 기록관리혁신 (1999년 이후). 『기록학연구』, 15: 67-93.

\_\_\_\_\_. 2009. 기록관리법 10년, 다시 한 번의 도약을 위한 제언. 『기록학연구』, 21: 413-429.

김희정. 2008. 기록관의 교육서비스 사례유형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27-43.

남재우, 김성희. 2009. 기록정보서비스를 위한 Web 2.0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2): 123-146.

박미애. 2010.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법제화 연구. 『기록학연구』, 25: 131-196.

서은경, 정경희, 최상희. 2006.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 활용 및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1): 65-92.

설문원. 2008. 기록정보서비스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5(3): 249-271.

설문원. 2009. 기록검색도구의 발전과 전망. 『기록학연구』, 33: 3-43.

윤종수. 2010. Government 2.0 in Web 2.0 Era. 『거버먼트 2.0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cited 2010. 6. 14]. <<http://www.slideshare.net/iwillbe99/government-20-2932299>>.

이영숙. 2007. 공공기록물 정보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2): 73-94.

이윤주. 2007. 기록관의 온라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웹사이트 평가기준설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6: 147-200.

이희은. 2008. 위키피디어 정보의 기술문화적 함의. 『언론과학연구』, 9(2): 461-497.

임지선, 구돌래. 2007. 오라 위키백과의 세상으로. 『한겨레21』, 672.

장혜란, 이명희. 2008.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위한 이용자서비스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5(3): 321-338.

정경희. 2007. 시장세분화 기반의 기록정보서비스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3): 277-296.

전영한. 2007. 정책도구의 다양성: 도구유형분

- 류의 쟁점과 평가. 『정부학연구』, 13(4): 259-295.
- Adams, Margaret O. 2007. Analyzing Archives and Finding Facts: Use and Users of Digital Records. *Archival Science*, 7(1): 21-36.
- Cohen, Laura. 2006. Library 2.0: An Academic's Perspective: A Librarian's 2.0 Manifesto. [cited 2010. 7. 31]. <[http://liblogs.albany.edu/library20/2006/11/a\\_librarians\\_20\\_manifesto.html](http://liblogs.albany.edu/library20/2006/11/a_librarians_20_manifesto.html)>.
- Cook, Terry and Joan Schwartz. 2002. Archives, Records, and Power: From (Postmodern) Theory to (Archival) Performance. *Archival Science*, 2: 171-185.
- Cook, Terry. 2001.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New Formulation for Old Concept. *Archival Science*, 1(1): 3-24.
- Crawford, Walt. 2006. Library 2.0 and Library 2.0. *Cites & Insights*, 6(2): 1-32.
- Duff, Wendy and Verne Harris. 2002. Stories and Names: Archival Description as Narrating Records and Constructing Meanings. *Archival Science*, 2(3): 263-285.
- Farkas, Meredith. 2008. The Essence of Library 2.0? [cited 2010. 7. 31]. <<http://meredith.wolfwater.com/wordpress/2008/01/24/the-essence-of-library-20/>>.
- Giles, Jim. 2005. Internet Encyclopedias Go Head to Head. *Nature*, 438: 900-901.
- Huvila, Isto. 2008. Participatory Archive: Towards Decentralised Curation, Radical User Orientation, and Broader Contextualisation of Records Management. *Archival Science*, 8: 15-36.
- Kelly, Brian. 2009. A Risks and Opportunities Framework for Archives 2.0. [cited 2010. 8. 15]. <<http://www.ukoln.ac.uk/cultural-heritage/events/archives2.0-2009/>>.
- Krause, Magia and Elizabeth Yakel. 2007. Interaction in Virtual Archives: The Polar Bear Expedition Digital Collections Next Generation Finding Aid. *The American Archives*, 70: 282-314.
- Maness, Jack. 2006. Library 2.0 Theory: Web 2.0 and Its Implications for Libraries. *Webology*, 3(2): Article 25. [cited 2010. 8. 15]. <<http://www.webology.ir/2006/v3n2/a25.html>>.
- NARA. 2010. National Archives Announces Launch of New "Our Archives" Wiki. Press Release, July 8 2010. [cited 2010. 8. 11]. <<http://www.archives.gov/press/press-releases/2010/nr10-117.html>>.
- Pugh, Mary Jo. 1992.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Chicago: Society of American

- Archivists. 설문원 역. 2004. 『기록정보 서비스』, 서울: 진리탐구.
- Reeder, Jessica. 2009. Archives 2.0 and Web 2.0: Definition and Implementation. [cited 2010. 8. 15].  
<<http://www.slideshare.net/jkreeder/archives-20-and-web-20>>.
- Ridolfo, Jim, Michael McLeod, and William Hart-Davidson. 2009. Archive 2.0: Imaging The Michagan State University Israelite Samaritan Scroll Collection as the Foundation for a Thriving Social Network. WIDE Research Center. [cited 2010. 8. 4].  
<<http://wide.msu.edu/contact/archive>>.
- Samouelian, Mary. 2009. Embracing Web 2.0: Archives and the Newest Generation of Web Applications. *American Archivist*, 72(1): 42-71.
- Sedgwick, Jessica. 2009. Let Me Tell You about My Grandpa: A Content Analysis of User Annotations to Online Archival Collections. *Conference of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13 August 2009.
- Theimer, Kate. 2008. Archive 2.0?. *Archivist-Next*, [cited 2010. 7. 31].  
<<http://www.archivesnext.com/?p=203>>.
- \_\_\_\_\_. 2009. Archive 2.0: An Introduction.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Annual Meeting. [cited 2010. 8. 4].  
<<http://www.slideshare.net/ktheimer/archive-20-an-introduction>>.
- Weinberger, David. 2009. Transparency is the New Objectivity. Joho the Blog. [cited 2010. 8. 8].  
<<http://www.hyperorg.com/blogger/2009/07/19/transparency-is-the-new-objectivity/>>.
- Wikimedia. 2010. List of Wikipedias. [cited 2010. 11. 8].  
<[http://meta.wikimedia.org/wiki/List\\_of\\_wikipedias](http://meta.wikimedia.org/wiki/List_of_wikipedias)>.
- Wikipedia 2010. Wikipedia: About. [cited 2010. 8. 15].  
<<http://en.wikipedia.org/wiki/Wikipedia:About>>.
- Williams, Caroline. 2006. *Managing Archives: Foundations, Principles and Practice*. Oxford: Chandos Publishing.